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 실태 및 지원 방안¹⁾



정채관 부연구위원
KICE 임용시험센터

영국 버밍엄대와 워릭대에서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워릭대에서 영어교육·응용 언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ICE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방안'을 연구했고, 통일연구원과 '김정은 시대 북한 영어교육의 변화'에 관한 공동 연구를 했다. 현재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초·중·고졸 검정고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일명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 마을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m이다. 이는 서울 시청에서 남대문까지보다 더 가까운 거리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과 보편적 가치는 남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멀게 느껴진다.

2015년 10월 기준, 통일부에서 집계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 8,497명이다. 바야흐로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시작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약 10%로 파악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대부분 가족을 따라 남한으로 왔다. 북한이탈청소년 중 다수는 식량 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고,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심한 긴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등을 거치는 동안 발각될 위협에 처한 경험이 있고, 남한에 온 후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심리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상당수이다(통일부, 2014).

북한이탈청소년은 언뜻 보기에 남한에서 나고 자란 또래 남한 청소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북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 그리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청소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한에서 나고 자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청소년과는 분명 뭔가 다르다.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 즉 체제의 차이에 시작된 문화의 차이가 이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표현, 외래어, 한자어에 낯설다. 남한 학교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주도학습 역시 낯설다. 또한 북한에 있을 때 탈북과정 중 장기간의 학습 공백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낯설함과 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은 남한 학생들에 비해 낮을지 모르지만, 자존감은 매우 강한 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교육 체제 편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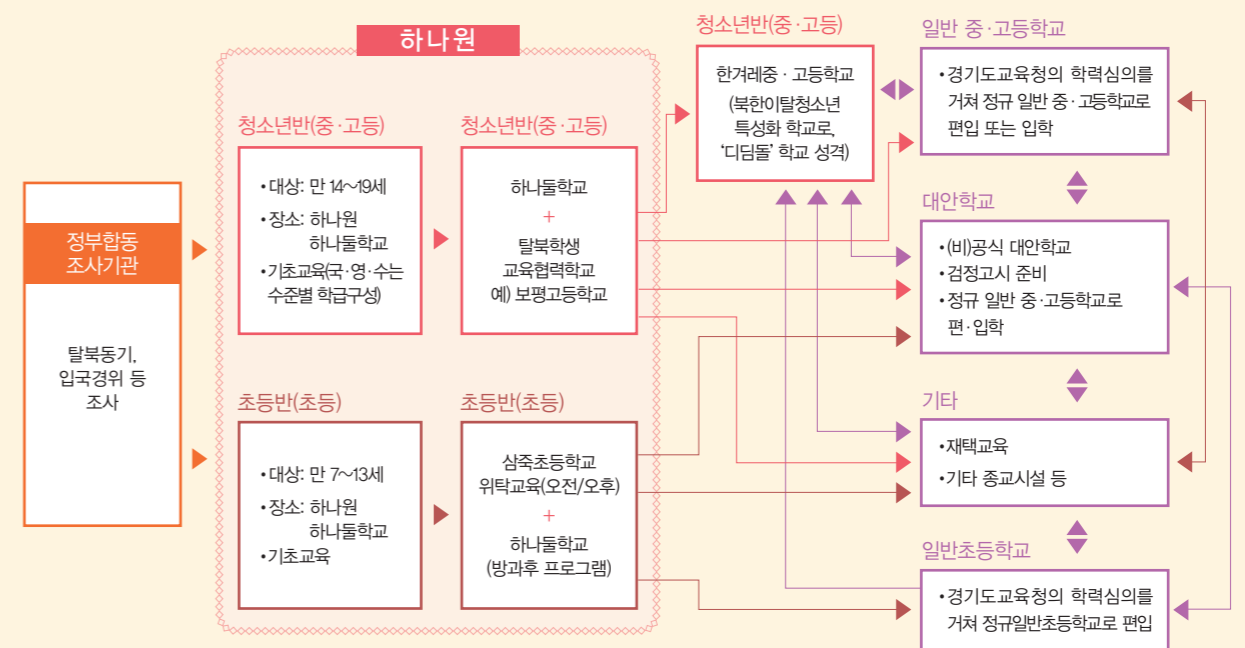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면 정부 합동조사기관에 의해 일정 기간 탈북 동기와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모든 조사를 무사히 마치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남한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상적인 남한

적응 교육과 함께 나이에 따라 하나원 하나둘학교에서 초등반과 청소년반으로 나뉘어 남한 교육 체제 편입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그림 1 참조).

초등반은 만 7세에서 13세 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하나원 하나둘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으며 남한 학교 적응을 위해 이웃해 있는 삼죽초등학교와 같은 곳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수업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반은 만 14세에서 19세 학생들로 구성되며, 개인별로 격차가 심한 과목은 수준별 수업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반 학생들은 탈북 학생교육협력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어울려 교우 관계를 맺는 등 남한 학교 적응을 위한 활동도 한다.

초등반 학생들은 12주의 하나원 생활을 마친 후, 경기도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거쳐 정규 일반 초등학교로 편입하거나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반 학생들은 북한이탈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거쳐 정규 일반 중·고등학교로 편·입학한다. 물론 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안학교나 기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교육 체제 편입 과정(정채관 외, 2014)



1) 이 글은 '정채관, 민호기, 박용호, 김소연(2014). 북한이탈고등학생 영어학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탐색. KICE 연구보고 RRI 2014-6'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 실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A교사는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남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를 먼저 가르쳐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컨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교과서에 나온 노란 젤리 사진을 보여주며 “이 젤리가 무슨 색이지?”라는 질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젤리가 뭐냐고 물었고, 말랑말랑하고 씹으면 과일 맛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이들은 북한에 있을 때 젤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B교사 역시 ‘Grape(포도)’라는 단어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포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청소년의 일상적인 언어·문화적 낯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해결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나 수학 같은 교과는 북한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차츰 적응해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어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진아 외, 2012). 최근에는 북한에 있을 때 영어를 배웠다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북한에 있을 때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저조한 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에서 TV,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고, 영어학원이나 학습지, 기타 영어 사교육 경험이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로 하여금 영어가 늘 어렵게 느껴지며,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남한식 수업 방식에 대한 낯섬과 북한 학교에서 익숙했던 수동적인 학습 태도 역시 이들을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정채관 외,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미래와 영어

2011년 국가수준 초·중·고등학교 영어과 학업성취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초학력 및 기초미달 비율에서 남한 청소년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학력 비율에서는 북한이탈초등학생은 약 2배, 북한이탈중학생은 약 4배, 북한이탈고등학생은 6배 등 남한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의 영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신진아 외, 2012).

북한이탈고등학생은 ‘새터민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등 정원의 특별전형 방식으로 남한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명문대에 입학한다. 하지만 명문대 입학 후 이들이 겪는 대학생 활은 다르다. 어떤 북한이탈대학생은 “OO대에 들어왔는데 뭔가 OO대생 같진 않고…”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여러 과목을 흥미롭게 듣고 대학생활이 재미있었으나, 영어는 가장 괴로운 과목 중 하나”였으며 휴학을 했다(조정아 외, 2014).

유시은 외(2013)에 의하면, 일반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5.0%지만, 북한이탈대학생은 1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퇴나 제적 또는 휴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휴학 중인 북한이탈대학생 132명에게 학업 중단 이유를 물어본 결과, ‘영어공부를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32.7%), 북한이탈청소년이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유지하는 데 영어가 큰 문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이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영어의 벽도 높다. 예컨대, 대학 진학에 관심 없던 북한이탈청소년이 여름방학 동안, 미리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주문대에서 일하던 그 학생은 하루 만에 해고를 당했다. 영어로 쓰인 담배 이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로만 쓰여 있는 수입 과자나 물건도 그 학생에게는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남한에서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직하려면 공인 영어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다. 무사히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 동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외래어와 일상적인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힘들어진 다. 이러한 사내 영어 사용의 빈도는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일수록 심한 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 지원 방안

현재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영어 학습 지원은 다양하다. 하지만 정채관 외(2014)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실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습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고등학생의 경우, 자주 교체되는 지원기관의 담당자와 연락이 끊어지면 학생에게 필요한 영어 학습 지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양질의 영어 학습 지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총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단위학교에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필요할 때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유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영어 기초학력진단 도구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별 기초학력진단 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어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도구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초능력진단 도구와 사용설명서를 개발하여 지역 교육 지원청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징, 남한 교육 체제로 편입되어가는 과정, 영어 실태, 미래와 영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청소년들이다. 다른 지방 사투리를 쓰는 일반적인 남한의 청소년과는 심리적인 상황부터 무척 다르다. 또한 이들은 남한의 일반 청소년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다른 체제에서 성장하였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전혀 다른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였다.

최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나 대안학교에서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남한의 일반적 인 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정채관 외, 2014). 문제는 이들이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영어 때문에 겪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남한 청소년에게 기대하듯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탈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뒤쳐진 영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청소년 스스로도 영어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영어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구현하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윤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KICE 연구보고 RRE 2012-13.
- 유시은, 배형준, 조명수, 김경희, 최영실(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북한이탈주민재단 연구총서 2013-02.
- 정채관, 민호기, 박용호, 김소연(2014). 북한이탈고등학생 영어학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탐색. KICE 연구보고 RRI 2014-6.
- 조정아, 이교덕, 강호재, 정채관(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 조정아, 홍민, 이항규, 이희영, 조영주(2014).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KINU 연구총서 14-05. 통일연구원.
- 통일부(2014).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